해변가의 크리스마스 산타 크리스마스인 25일 여름이 한창인 호주 시드니 본디 해안에서 수영객들이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老兵들 盧에 화났다

역대 군 수뇌부 오늘 긴급 회동…대통령 '군대발언' 반박 성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전직 국방장관 등을 비난한 것과 관련, 역대 군 수뇌부들이 반박성 기자회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관계자는 25일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 대통령의 '군대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동과 기자회견에는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역대 군 수뇌부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에는 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성명서의 수위가 주목된다.

성우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랫동안 군에 봉직하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분들이 안보와 관련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 정면으로 공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군 수뇌부들이 긴급회동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군대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취할 경우 파문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긴급회동을 앞두고 역대 군 수뇌부 가운데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25일에도 성명서의 내용과 수위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우회 회장단과 역대 국방장관 10여 명은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23일 향군 사무실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역대 군 수뇌부들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이 회동에는 이상훈, 김성은, 오자복, 이기백, 김동신, 김동진, 이종구 전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역대 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한다' 등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우회는 또 22일 김상태 회장 등이 참석한 회장단회의에서 "너무 쇼킹하다", "밤잠을 설쳤다", "해명하도록 준비할 것"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통 행사에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역대 국방장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등의 비난성 발언과 함께 '군에 가서 썩지 말고...' 등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언급을 했다. /연합뉴스

"BDA 해결 주체는 마카오"

美, '합법자금' 처리방향 시사…실무회의서 불법 안밝혀

미국은 지난 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북미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에서 2천400만달러 규모의 동결된 북한 계좌 처리 방안과 관련, '자금 동결이나 해제의 주체는 마카오 당국'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재무부의 BDA 조사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입수한 정보의 내용과 이를 조사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은 초기에 '무조건 동결 계좌를 풀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입수 정보와 미국의 제도 등을 주로 설명하자 자신들도 북한의 금융제도는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금융 관행 및 경위 등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자금 동결과 해제의 주체로 마카오 당국'을 지목한 것은 미 재무부가 향후 BDA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통보하면 합법성이 인정된 북한 계좌의 해제는 계좌주인과 마카오 당국이 협의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결 계좌 해제 방안과 관련, 계좌 주인들이 해당 은행 등을 상대로 '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이번 BDA 실무회의에서 BDA를 매개로 한 북한의 불법행위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북미 회동은 BDA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양측 실무 당국자들끼리 면식을 트고 기본적으로 가진 정보들을 교류한 탐색전이자, 후속 협의의 기반을 닦는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4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국방부 전통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귀빈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潘총장 당신은 미끄러운 뱀장어"

美 abc방송, 이라크 침공 질문에 즉답 피하자 힐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또 '미끄러운 뱀장어'라는 소리를 들었다.

반장관은 이날 abc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로 부터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라크 국민들의 장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건 알겠고, 불법으로 보느냐"고 재차 묻자 반 사무총장은 "이는 이미 지나간 논의이며,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나는 이라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노풀로스는 "당신은 지금 왜 '미끄러운 뱀장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반 사무총장은 "그 별명은 내가 언론에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답하자, 스테파노풀로스는 "언론에 우호적이지만, 필요할 때는 피하는 것이며 그래서 당신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기아차 노조 출범에 부쳐

이종태
경제부 차장

70여년간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해온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몰락하고 있다.

GM이 거둔 성공은 살아있는 신화가 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채처럼 보였다. 그러나 요즘의 GM은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 투성이다.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25%대로 떨어졌고, 회사채는 쓰레기채권(정크 본드) 취급을 받고 있다. 5개 공장을 폐쇄하고 3만명을 해고하겠다는 긴급처방도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걸핏하면 파업을 들먹이는 노조에 굴복해 매년 임금을 올려주고, 퇴직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을 퍼주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다 거덜이 난 셈이다.

GM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동차업계 뿐만이 아니다. 강성노조와 반기업 정서로 인해 외지기업이나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전체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교훈이다.

GM의 몰락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득 광산구 소촌동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무등의 직원 해외연수를 떠올린다. 콘덴서 피복용 튜브 생산업체인 무등가족 190여명은 지난 6월 3박4일 동안 일본 관서지방을 돌아보는 직원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94년 이후 네번째였다.

당시 동행했던 기자는 "관광이나 다니고 말겠지" 했으나, 연수일정은 첫날부터 빡빡했다. 재일교포 기업가의 강연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말단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회사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던 기업주의 열성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이같은 노사관계는 무등을 20년 넘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이끌었고, 올 1월 지역기업으로는 처음 전 직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새 기업문화를 낳았다. 오는 2010년 매출 500억원, 전체 매출 가운데 순이익률 7% 달성이라는 비전도 결코 헛된 꿈만은 아닐 듯하다.

한 기업의 발전은 사업주의 양보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노사간의 건설적인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계가 인정하는 강성노조였던 현대중공업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선언한 뒤 동종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회사로 탈바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제 더 이상 광주·전남지역이 강성노조와 반기업 정서의 '고유명사'가 돼서는 안된다. 기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사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오는 28일이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새 집행부가 탄생한다는 소식이다. 새 집행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내년에는 16년 연속파업 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고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노조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jtlee@kwangju.co.kr